

후영교회와 선한농부마을 이야기

김 경 준 (목사, 충북 괴산 후영순복음교회)

농촌지역전도를 위한 요긴한 제안

계간지 『농촌과 목회』를 읽고 농촌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생명을 드려 충성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음에 깊이 감사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촌 목회를 위한 많은 지식들이 『농촌과 목회』라는 지면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농촌목회의 기름진 토양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 저도 농촌목회에 대한 작은 경험을 글로 올리고자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행정이나 전도에 있어서도 정보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 행정을 집행할 때나 전도할 때 허공을 치듯 하는 소모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촌교회의 가장 막막한 문제는 끈끈한 혈연, 지연관계의 집단, 도덕과 체면이 중시되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 각 개인들에 대한 정보와 그 동네를 구성하는 집단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활동목표나 전도목표를 세우기가 막연해 집니다.

전도 목표를 세울 때를 예로 든다면 막연하게 ‘올해 몇 명’하

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누가 교회를 나올 만 한지, 누가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집 자녀가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는지,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얻고 그 기초자료 위에 현실적인 전도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 정보를 얻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_ 시골교회 목회자가 좌절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욕은 있는데 막상 목회 대상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정보마저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촌 목회를 들어오면 몇 달 동안은 의욕과 사명 하나만으로도 열정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처럼 목표 없이 허공만 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지쳐서 결국 자기 자신과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시골 목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충고하나 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않는 농촌목회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밑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과 전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저 막연한 대상, 다시 말하면 막연히 ‘우리 동네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공격하고 전도할 수 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어느 누구’가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전도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도 중요하지만 손쉬운 제보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 찌들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도시로 돈벌이를 나간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작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백일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내 또래가 학교 다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

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죽고 싶어서 수 없이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아저씨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기쁜 날에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이 못난 자식 살린 교회에 어머니도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 아들은 곧 바로 그 사실을 고향교회(후영 교회)에 알려 주어서 전도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술 마시고 성도들에게 시비 걸어오던 그 분이 그 후로 교회를 나오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그 분을 자식 혼자서도 전도하기가 어려웠고 또 후영 교회 자체로서도 그 분을 전도하려고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아들과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성도 두 분이 협력해서 전도한 예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기회를 얻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시라고 권유했고 이웃하는 성도들은 자식, 며느리 다 교회 다니는데 어쩔려고 그러느냐고 추궁하고 교회는 심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으로 관리했던 예입니다.

도시교회에서 농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고향이 시골인 성도들에게 명절이나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갈 때에는 고향 교회에 들려서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을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가족사항이나 근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함께 전도하도록 권해 주시면 시골교회는 좀 더 선명해진 목회대상으로서의 동네 사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시골 교회는 그 때부터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게 되고 허공을 치듯 하는 허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무작정 축호 전도, 노방 전도는 그 효과가 너무 추상적이고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의 효과나 중요성은 흔들릴 수 없지만 전도의 대상이 내 눈에 포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시집 간 따님이 교회는 다니지 않고 청주에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 그 친정 어머니와(우리 교회성도)함께 그 집으로 심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청주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로 이 가정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그리고 직업에 대해 자세히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같이 심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교회가 단독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능률적인 전도가 가능합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허공을 치는 듯한 전도에 대한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는 우리 동네에 사는 이의 셋째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얼른 그 가정을 심방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교도소에 근무하심)을 통해서 편리를 살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순순히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을 받아 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맏아들과 맏며느리가 인천에서 충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안됐다가 이번에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교회로 와서 만나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좀 더 일찍 그런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교회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서 더 신속히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전도되니까 딸과 둘째, 넷째 아들들과 사기막에 사는 친정 어머니(할머니)가 저절로 또 연계가 되었습니다. 곧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에 연락해서 그 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얼마 후에 확인 해 보았습니다. 다 교회에 충실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도농 교회, 자타 교회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시골가면 교향교**

회 가보기 또는 예배 참석하기”를 권유해 주신다면 농촌교회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동네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정보 공유가 절실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 구조적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50-65세 되신 분들이 평균 자녀를 3-5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만 마치면 자녀들은 다 부모를 떠나 도시로 가게 됩니다. 사회가 3차 산업사회로 변화가면서 고급 인력인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50-80대의 나이 드신 분들만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구성원이면서도 도시와 농촌으로 반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촌에 남은 가족과 도시로 떠난 가족이 한 가족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게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 사는 자녀는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에 사는 부모가 교회에 안 다닌다든지 아니면 바뀌어서 시골에 사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도시 사는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놀랐는데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각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 떨어져 사는 각 지역 교회에 주고 협력해서 전도한다면 상호 연쇄작용에 따른 가속도가 붙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진리에는 가정 복음화(핵가족 복음화)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한 집안의 구원, 또는 일가친척 구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살던 기생 라합의 경우에도 이 진리는 적용되어 졌다고 봅니다.

시골교회가 사는 길은 도시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도시교회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도 부흥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아야 하지 너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고 나만 살자고 하면 안되는 것이 복음의 사역임을 짧은 농촌 목회를 통해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대적 특성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나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 없는 정보일지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농촌과 목회』라는 계간지를 받아 읽어 보니 농촌 목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독교적 농업관 등 많은 부문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농촌 목회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자료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농촌과 목회』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 선한농부마을

1992년 필자가 후영교회에 부임해서 보니 교인은 세 명뿐이었고 그나마 가난과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농삿일을 보니 고되기는 중노동인데 수입은 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목사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제시하는 데에는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구조적인 모든 면에서 선견하며 가르치고 제시해야 한다고 배우고 믿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경제는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목회자의 양심으로, 농촌에서 이렇게 일하느니 도시에 나가서 막일을 해도 이보다는 더 쉽고 더 경제적으로 웅색하지 않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도시로 이사가라고 권해야 하지 않는가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교향을 지키겠다는 그들에게 교향을 떠나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사람들도 사정은 같아서 이미 절반이 도시로 떠났고 남

은 자들도 엄두를 못 낼뿐 도시로 떠나려고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5장 1-11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복음과 실제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시는 주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의 채움이 없이 그저 배 위에서의 말씀만 있었다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많이 잡힌 고기로만 만족해하거나 육신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은 곳까지 진행하여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최고급 포장지에 선물을 포장해서하지만 누구도 포장지를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듯이 복음을 육의 필요로 포장해서 전하면 결국 그들의 입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필요의 채움! 그것은 지금 농촌목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서 생명의 말씀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의 현실과 경제의 압박함에 노예처럼 찌들고 억눌린 우리 동네부터 출애굽 해야한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농업 작목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민이 바라고 소망하는 풍요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 농촌을 여호와의 물댄 동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행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옛날 농사를 탈피하고 청결농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저농약 농법의, 청결고추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해 온 농사방법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성도들이 부농회 사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로간의 욕심과 시기가 일고 또 동네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지 않아 많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속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로가 인정되어 군청에서 3400만원을 포상하여 집하장을 지어주고 상금도 주고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도 상품화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상품은 값이 없듯이 포장되고 상품화된 복음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포장은 상품의 내용물인 복음을 알게 되면, 포장지를 버리듯이 버리겠지만 이 시대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복음의 상품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괴산 청결고추 뿐만 아니라 토종개구리 양식 연구와 성공으로 전국의 중학교 개구리 해부실습용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등 농업의 특화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여 도시교회와 농산물 직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아파트 및 고급식당에도 자매결연이 형성되어 얼마간의 자립을 위한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은 농가 부채를 다 벗었고 노력한 가정은 이제 다시 집을 건축하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력이 없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농 사업 연구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행사 연계에 더 치중하여 귀농인들과 농촌 주민들에게 주님의 복음에 살 길이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